

십자가 현양축일

기도서·P. 437 C해

제1독서(민 수)	21, 4-9)
제2독서(필립)	2, 6-11)
복음(요한)	3, 13-17)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부러움

문 규 현 신부

부러움이란 남과 같이 자기도 가지거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하겠다. 근자에 와서 폴란드 국민은 나에게 부러운 국민의 하나가 되었다. 근자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경이와 동정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는 국민의 90%가 가톨릭신자인데 공산국가라는 알아듣기 힘든 현실이 그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까……

그런데 그곳은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배울래했다. 노동자들이 공산사회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종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 파업투쟁을 그런대로 성공리에 끝냈다. 막대한 힘과 조직을 가진 체제안에서 현실에 급급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죽기를 각오한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안에서 자유노조 결성과 파업권 인정이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십자가의 승리다. 접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더 큰 자유화의 진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부럽다. 소련군의 개입을 피하려는 정부 지도자들의 태도 역시 부럽기만 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집안이야 어떻게 되든 한판 승부를 거는, 이미 노예가 되어 버린 들음꾼에게서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침묵으로 고통어져 가고 있다. 침묵은 부정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받아 들이는 사람이 동의로 받아들이면 그도 그만이다. 해서 우리는 이 땅에 폭도를 낳게 했고, 새 시대를 시작하게 했다.

시시각각으로 고통어져진 새들의 울어대는 노매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이것이 정녕 솔로몬의 지혜인가……

솔로몬의 지혜로 얻은 영화도 들꽃 한송이 만큼도 못하건만 역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가 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택한 그리스도는 그를 추종하는 폴란드인들을 어리석게 보는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승리의 개가를 울렸다. 과연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지 모르나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의 위대한 힘이다. (코린 1, 18. 23. 24)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르 15, 34) 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침묵만 지키시던 그분은 더 큰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셨다.

오늘은 바로 그 십자가 현양축일이다. 십자가의 이치를 알자. 부러워만 하지 말고 부러운 존재가 되자. 그래서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자. 어리석은 십자가의 승리자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명하신다.
 (군산 팔마천주교회 주임신부)



왜

축포에 놀래?

총소리가 결코 음악일 수는 없다.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우리의 선조들 가슴팍을 겨냥하고 쏘아대던 일제의 총소리부터가 그렇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 일으킨 북한 공산집단의 6·25남침 총소리도 그렇다. 독재에 항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에게 쏘아치던 총소리도 그렇다. 빨리 잊고 싶은 악몽, 광주에서 들리던 총소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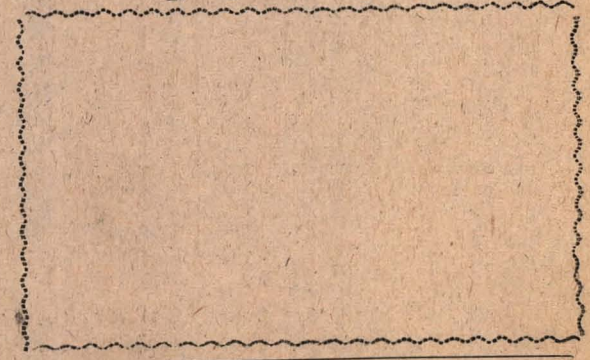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은 학교 주변의 가게에는 <콩알탄>·<단발 축포>와 <스트라이크 성냥>이 잘 팔리는 모양이다. 축포(祝砲)는 기쁜날 터뜨리는게 상례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명절날에도 많이 터뜨린다고 한다. 그런데 때도 가리지 않고 터뜨릴 수 있겠끔 팔리고 있는 모양이다. 「본제품은 허가 및 검사필품, 내치보 6840호」라고 명시된 <단발 축포>에는 “12세 미만은 사용하지 말 것, 유류나 폭발물 저장소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다. 이 축포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성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찰 성냥> 또한 함께 파는 모양이다. 버젓이 “어린이에게 판매를 금함”이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의사항대로만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추석명절이 가까우니 알뜰한 상흔들이 그런 장난감(?)을 파는 모양인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이너마이트 축포판처럼 생긴 축포를 왜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고슴도치에게 놀란 호랑이가 밤송이더러 “아까 그분의 자제분이십니까?” 했다는 우스개가 생각난다. 소위, 축포소리가 폭발터지는 소리나 총소리로 들리니, 꼭 놀란 호랑이 꼴이다. 부디 평안한 가운데 여기 저기서 즐거움의 축포가 터지는 날을 손모아 빌어 본다.

요새 아이들에게는 병정놀이가 인기가 큰가?

숲 정이 산책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자!

—제5차 순교자 현양대회를 알차게 치르기 위해

다섯번째를 맞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두 주간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어 더욱 일치와 협조가 아쉽다. 오는 9월 28일에는 우리 모두 치명적인 숲정에서 만나자. 서로 뜨겁게 손을 흔들며 우정을 나누자.

□ 지난날들

이번의 모임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지난날을 되돌아 보자. 네 차례의 대회가 두 번은 숲정이 마당에서, 두 번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치명터 마당을 뜨겁게 쏟아대던 햇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방울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피곤한 다리들을 달래가며 잘도 참아 냈다. 어쩌면 약간의 고통속에서 십자가를 느낄 수 있었던지도 모른다.

노약자들의 고통을 덜고,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얻고 싶어 우리는 실내체육관에서도 모여 보았다. 아늑하고 장중한 분위기는 좋았으나, 내집이 아니라서 장소를 얻는데에 약간의 고충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마이크였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어디로던지 숨고 싶었던 것이, 대회를 치워내는 평협측의 고통이었다. 마이크 하루 빌려 쓰는데 20만원 가까운 돈을 드렸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순교자 현양대회는 ① 편안한 장소와, ② 뚜렷하게 잘 들리는 마이크 시설의 여부가 그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가 갖추어지면, ③ 알찬 프로그램이 또한 그 생명을 돋보이게 한다. 장소와 마이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쓸데 없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하루 빌려 쓰는데는 4백만원이나 든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몸이 약간 고달프더라도 말소리나 뚜렷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우리 해성학교의 강당 겸 실내체육관이 금번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해성 강당을 이용하기로 했었다. 방음효과면에서는 전주 실내체육관보다야 문제가 없다. 다만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3천여명 밖에 입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로 아담하게 지어진 우리들의 집인지라 좋았다.

그러나 문제가 또 생겼다. 해성 강당이 전국체전시에 체조경기장이 되어서, 체육회에서는 이미 시설을 끝내고 전복 선수단들을 연습에 들어갔다. 우리가 꼭 강당을 써야 한다면 선수들은 3일이상이나 연습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을 위해 새로이 돈을 드려야 하게 된다. 체육대회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해 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해왔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은 우리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차례나 소리가 안들려 애를 먹었는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몇 차례의 숙의가 있었다. 해성 강당은 양보하기로 했다. 결국 상당한 액수의 체전성금을 낸 셈이다. 부디 체조선수단의 선전을 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교선열들의 피로 얼룩진 해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빈다.

□ 기도부터

자칫 잘못하면 순교자 현양대회가 의례껏 치워내는 언중행사처럼 끝나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번에는 <9일묵상>으로 시작한다. 오는 9월 19일부터 정해진 주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활해 나가자는 것이다. —① 자신의 반성·② 이웃 사랑·③ 세계 평화·④ 가정 성화·⑤ 부모에게 효도·⑥ 나라 사랑·⑦ 교회 일치·⑧ 사명의식·⑨ 예언자 모습들을 배우고, 되돌아 보고, 다짐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몸으로 실천해 보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다.

내실이 없는 허울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매우 희망적인 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교리경시>에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이다. 응시 희망자의 숫자보다는 실제 응시자의 숫자는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교구 총 신자수의 10%선이라는 점이 희망적인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지적인 무장을 마음먹은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 이것만은

순교자 현양대회는 당일(9월 29일) 미사로 시작된다.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 사제단의 합동미사는 11시에 봉헌된다. 따라서 모든 분당은 늦어도 10시 40분까지는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도착되는 순서대로 안내표지판을 따라 정해진 장소에 질서있게 정렬해야 하겠다. 미사 끝에는 웅변대회의 최고 수상자(최우수상)의 웅변을 듣고 시상식을 갖는다. 이상이 소위 제1부 행사이다.

제1부 행사가 끝나면 ① 분당 사도회 임원과 공소회장 ② 제단체의 회원(농민회·J·O·C·대학생회·의사회·약사회·교리교사회), ③ 꾸르실리스타 형제자매, ④ 초·중·고 대학의 교직원, ⑤ 가톨릭 학생 운동 선배들은 해성학교 강당에 모여 제2부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제2부 행사는 강연회(순교자와 예언자)와 계층별 우정의 모임(團合大會)으로 이루어 진다. 빠짐없는 참석이 요청된다.

이외의 일반 신자들은 「복자성당 참배」, 「치명산 순례」등을 각 분당 단위로 하게 된다.

오직 바라는 바는 적극적인 참여이다. 참여는 단념이요, 단념은 우정의 나눔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결속과 우정을 다지는 모임에 거는 기대가 부른다.

또 하나는 질서다. 해성학교는 우리의 학교이기에 더욱 아껴야 한다. 또한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해성가족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조와 이해로 알찬 대회가 되기를 빈다.

□ 각종 케텐·카페트·웅점세트·실내장식 일절

삼 성 인 테 리 어

주 이 종 화(바오로)

전 화 ⑥ 1330

(팔달로변 전화국 북편 송외과 옆)

9일기도로 내실을 얻자!

—순교 정신을 몸으로 배우고 익혀야

순교정신을 배우고 몸에 익히기 위한 순교자 현양대회가 복자성월마다 열릴지, 이제 다섯번째. 행사를 위한 대회를 치루지 말자는 소망들이 (9일기도)를 갖기로 했다.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격나라하게 들어 내놓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기도하자.

모든 본당에서, 모든 가정에서 같은 지향으로 반성하며 기도하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일 (9월 19일) 나는 어떻게 살아 왔는가? ...자기 반성하기.

제 2일 (20일)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보속의 의미로 선행하기.

제 3일 (21일)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세계평화도 생각하며 사는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특히 공산주의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기.

제 4일 (22일) 내 가정은 화목한가?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기.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기.

제 5일 (23일)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기.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제 6일 (24일) 나는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질서 지키기.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기.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기.

제 7일 (25일) 나는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 가는가? ...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할 일을 다하는가 반성하기.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기. 교회의 지도자, 특히 교황님과 주교님들에게 성신의 올바른 감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기.

제 8일 (26일)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감 목상하기.

제 9일 (27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크리스찬인지 반성하고, 그 사명감을 다짐하기.

위와같은 주제로 9일동안을 목상하고 기도하여 내적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복자성월이 되도록 살아가자.

각 본당 확인지도(確認指導) 시작

—9월 11일부터, 교구 실무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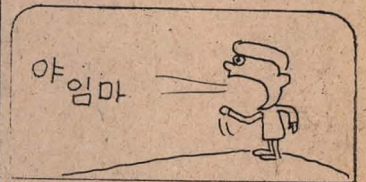
교구청의 실무팀이 각 본당의 확인지도에 나섰다. 9월 11일부터 순창·남원본당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확인지도는 10월 중순이 넘어야 끝날 예정이다.

확인지도는 교구내 38개본당의 제반 현황을 확인해가며, 본당의 사목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지도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

이 기회에 본당 사도회에서서는 그간의 활동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나날의 생업에 바쁘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꼭 본당에 나가 본당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하겠다.

오랜기간 계속되는 확인지도에 임하는 사목국장 신부님과 관리국장 신부님의 건강을 빌다. 부주교님은 귀국하는대로 확인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요심이 (371) 김병오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5013 · 5011

임 금 님

◆ 오리표 생크·가스기구 일체
백폼포 보청기

동남 종합 싱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
질, 호마이카, 락카, 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파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을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현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타을, 보자기, 축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 월 타 을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 2849 · 5612

업 판 설(베드르)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제 5 차 순교자 현양대회...9월 28일 오전 11시, 숲정이(해성학교 교정)에서 2면 참조
2. 9월 묵상 실시...9월 19일부터(3면 참조)
3. 평일 임시총회...오늘(14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 센터
※ 참가-① 각 본당 사도회장 ② 교구단위 제 단체장
4. 성가 및 웅변대회 결선...21일(일), 오전 10시(웅변), 오후 2시(성가), 가톨릭 센터에서
5. 가톨릭 학사회(假稱) 모임...현양대회 당일 오후, 제 2부 행사 끝에
현재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대학원생은 可)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 가톨릭 학생운동에 참여한 분으로
함께 우정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후로 선후배에게도 널리 알려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 3 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10월 12일, 서울 동성고교에서
① 주제...“하느님과 나”(중등부), “하느님 백성의 일치(고등부)
② 참가 희망자는 현양대회(9월 28일)날까지 교구 평협으로 원고와 더불어 접수하시기 바람
③ 원고 길이...200자 원고지 10매 이내(7분 이내)
7. 남·녀 2, 3천 모임...14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3.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복지성월 행사안내...① 치명자산 참배-9월중 매주 일요일 오전 6시까지 치명자산 산 도착 ② 9월 기도회-9월 20일~28일 매일 오후 5시까지 치명자산 도착
※ 단 28일은 순교자 현양대회 참여로 대체함.
8. 전국 울뜨레아 개최 안내...10월 9일, 대전에서
푸르실로 회원님께서는 마음의 준비 대기 바라고, 회비 수송방법은 차후에 통지
9. 추석 교회모지 미사안내...23일(화) 오전 10시, 주교님 집전미사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유주 익명(10만원)
- 숲정이 대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속히 납부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③3874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규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성지순례: 경기도 광주 천진암 이벽묘소, 9월 15일 아침 7시 출발, 회비-3천원, 도시락 지참
 3. 추석합동 위령미사 시간안내
본당-오전 6시, 오후 7시 30분
교회모지-오전 10시 주교님 집전
 4. 대학생 정기총회: 18일(목) 오후 6시 강당
 5. 고등학생 월례회: 14일(일) 학생미사 후, 강당
 6. 지도자 위원회 회합안내: 매월 둘째주, 네째주 화요일 오후 6시, 박신부님 방
 7. 중학생 교리: 주일 학생미사 후 교리실
 8. 남·녀 2, 3천 모임: 14일(일) 오후 2시, 회합실
- 지난주 봉헌금: 392,88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윤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성서 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2.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본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람
 5. 금주의 성령읽기: 신약의 루카복음 전체
 6. 추석합동 위령미사: 9월 23일,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한가정도 빠짐없이 미사예물 봉헌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213,58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성열
 사도 회장 양상오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1층 회의실)
 2. 중·고학생 성지순례: 9월 21일 오전 7시 출발
장소-화산 나바위, 차비 지참 바람
 3. 주일학교 어린이교리: 토요일 오후 3시
 4. 21일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 합시다, (1만원 회차) 손영선
 5. 합동 위령미사 안내: 23일 오전 5시 30분·저녁 7시 30분, 한가정도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시다
 6. 중·고등학생 시화전: 오늘까지(2층 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244,76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순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허제석·최순석)
2.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미사 후(9시미사)
3. 영세자 특별교리: 15일~20일 저녁 8시 30분~9시 30분
4. 영세식: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5. 추석합동 위령미사: 9월 23일 저녁 8시
6. 축! 영명: 29일, 범라파엘 보좌신부님

7. 미수된 봉헌금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60,11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성 안셀모회: 14일(일) 오후 4시
 3.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 16일(화) 저녁 8시(강당에서)
 4.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10시 미사후)
 6. 오늘은 평신도 강론주일: 조동근씨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박장훈 ② 오상환
신자들의 기도-이정빈·김광수
- 지난주 봉헌금: 155,980원 교무금: 19,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요안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김종민씨 때)
 2.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4. 성당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5. 추석합동 위령미사: 먼저가신 선영을 위해 봉헌바람
- 지난주 봉헌금: 184,4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자모·성화회: 공식미사후 2. 장우희: 저녁미사후
 2. 성가정회 임시의회: 9월 15일 오후 2시
 3. 영세식: 9월 21일 공식미사 중에
집중교리 15일~20일
 4. 추석합동 미사예물 정성스럽게... (사무실 접수)
 5. 푸르실로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다음주 전례담당: 21일
아침미사: 사회-박종주, 독서-최병래·이진홍
공식미사: 사회-이준영, 독서-김병오·박순기
저녁미사: 사회-경영수, 독서-김윤주·이진홍
- 지난주 봉헌금: 384,58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환영: 최수녀님 수교가 많으시겠습니다
 3. 미사시간 변경: <월·수> 아침미사-6시 30분
<화·목·주일> 저녁미사-7시 30분
 4. 추석 합동미사(23일)에 한가정도 빠짐없이 선영들을 위해 봉헌합시다
 5. 예비자 교리: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일 10시미사 후·저녁미사 후
 6. 수녀원 신축기금 십인자: 차주 발표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9,040원 어린이회금: 2,650원
교무금: 73,500원